

# 문화 권력 경쟁: 玉壺亭과 石坡亭의 경영과 별서도의 후원

김 수 진 \*

1. <옥호정도>와 <석파정도>
2. 김조순의 옥호정과 <옥호정도>
3. 안동 김문의 별서 조성과 별서도 후원의 전통
4. 이하응의 정권 장악과 <석파정도>
5. 별서의 소유권 이동과 문화 권력 경쟁

## 1. <옥호정도>와 <석파정도>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실제 거주지 외에 따로 별서를 조성하곤 하였다. 별서는 보통 주인이 소유한 莊園이나 勝景地에 축조되어 일종의 휴양지로 만든 공간이다. 그런데 주인에 따라서는 별서를 중요한 정치적 거점이나 문예 창작의 산실로 활용하였다. 그 동안 별서 경영과 별서도 후원 연구는 17-18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17세기에는 양란 중에 폐손된 별서를 수리하면서 그림을 함께 주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졸업, 하버드 엔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연구원.

1) 별서와 별서도에 대한 연구는 한문학계, 미술사학계, 건축사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별서도에 대해서는 조규희가 학위논문을 통하여 15-18세기의 제작 양상을 살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전란 이후인 17세기에 臣權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별서도의 전통이 강화된 현상에 주목하였다. 조규희, 2006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 밖에 개별적인 별서 경영과 별서도의 제작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성과가 있다. 김은정, 2009 「申翊聖의 東淮 別墅」, 『고전문학연구』 36; 2009 「이경업의 사천장 경영과 『사천시첩』의 의미 재론』, 『국문학연구』 19; 이은하, 2014 『斜川詩帖』의 체제와 회화사적 의미』, 『미

문한 경우가 많았으며 18세기에는 실경도의 제작이 유행하면서 별서도의 제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제작된 별서도인 〈옥호정도〉와 〈석파정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별서도라는 사실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별서도가 帖 혹은 軸으로 꾸며지는 데에 반해 두 유물은 예외적인 형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석파정도〉는 병풍이며 〈옥호정도〉는 형식의 구분이 애매한 큰 종이에 그려졌다. 또한 옥호정과 석파정의 주인이 모두 19세기 최고의 세도가였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우선 〈옥호정도〉(그림 1)는 당대 안동 김문의 수장 金祖淳(1765-1832)의 별서를 그린 그림이다. 김조순은 청년 시절부터 正祖(1776-1800년 재위)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여 1802년 純祖(1800-1834년 재위)의 장인이 되었다. 〈옥호정도〉는 배산임수의 구도 하에 옥호정의 건물 배치 및 정원의 꾸밈새를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커다란 화면에 북악산 자락의 별서 위치와 가옥 구조를꼼꼼하게 그렸으며 정원은 樹種까지 알아볼 정도로 정세하다. 〈석파정도〉(그림 2)는 高宗(1863-1907년 재위)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李景應(1820-1898)의 별서를 그린 것이다.<sup>2)</sup> 석파정은 1860년대에 이하응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金興根(1796-1870)의 소유였다. 김홍근은 김조순의 조카이기 때문에 옥호정과 석파정은 한 때 모두 안동 김문의 소유였던 것이다. 〈옥호정도〉와 마찬가지로 〈석파정도〉도 풍수론에 입각한 배산임수의 구성을 보여준다. 화면 중심에 석파정을 위치시키고 廣角으로 遠景의 산맥과 계곡을 포착하였다. 석파정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사랑채, 왼쪽에 별채가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침루 영역, 안채, 사당 부지가 있다. 건물의 앞마당에는 20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老巨樹가 자리 잡고 있다.<sup>3)</sup> 두 그림 모두 정보 전달을 위한 건축 도면을 바탕으로 풍수적 입지를 강조하는 별서도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술사학연구』 281 등 참조. 옥호정과 석파정에 대한 건축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이원호 외, 2006 「석파정(石坡亭)의 조영과 공간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이원호 외, 2015 「조선후기 원립 석파정의 공간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1; 임한솔, 2016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석파정도병풍〉의 재현 공간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1를 참고하였다.

2) 〈석파정도〉를 국내에 소개한 자료는 신희권 외 필진·양진조 외 편집, 2012 『(미국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309-310면 도판설명 참조.

3) 석파정 부지에 대한 분석은 임한솔, 앞의 논문, 127-128면.



〈그림 1〉 작자미상, 〈옥호정도〉  
지본담채, 193×150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이한철, 〈석파정도〉 면본담채,  
141×251.5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최근까지 이 두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까닭은 두 작품 모두 국내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옥호정도〉는 소유주였던 李丙燾(1896-1989)가 1961년에 학계에 소개한 이후로 그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그 후손들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sup>4)</sup> 〈석파정도〉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이 2000년도에 현재의 소장처에 입수되기 전까지는 로스 카메론(Los Pressler Cameron)과 로버트 무어(Robert W. Moore)의 소장품이었다.<sup>5)</sup> 그러나 〈석파정도〉가 어떤 연유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인지는 추적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두 유물을 통하여 19세기의 별서의 조성과 별서도의 후원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대형 화면에 당대 최고 권력자의 별서를 재현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서를 포착한 구도와 배경의 처리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각각의 주문자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유물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김조순과 이하옹이

4) 〈옥호정도〉의 기증 내력과 작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장진아, 2017 「국립중앙박물관 〈玉壺亭圖〉에 대하여」, 『미술자료』 91 참조. 〈옥호정도〉는 1961년에 당시 소장자였던 이병도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다. 이병도는 이 유물을 ‘年前에 입수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정확한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李丙燾, 1961 「玉壺亭圖」, 『書誌』 2-1, 1-2면.

5) 〈석파정도〉의 소장 경로(provenance) 조사와 관련해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베지니아 문(Virginia Moon)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림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안동 김문이 축적해 온 별서 경영과 별서도 후원의 역사를 살필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옥호정과 석파정의 경영, 〈옥호정도〉와 〈석파정도〉의 제작이 합의하는 바를 구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20세기에 이들 별서의 소유권이 변동된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별서 소유가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도 논의하고자 한다.

## 2. 김조순의 옥호정과 〈옥호정도〉

김조순이 소유하였던 옥호정은 先代부터 내려오던 택지는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옥호정 부지는 원래 張生이란 인물이 소유하고 있었다. 김조순은 甲子(1804)에 장생에게 청하여 부지를 구득한 후 이사를 하였다.<sup>6)</sup> 그런데 〈옥호정도〉의 刻字에는 ‘乙亥壁’이라는 부분이 있다(표 2). 이것이 1815년에 각자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옥호정도〉를 그렸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1804년에 부지의 구입이 이루어진 후 1815년에는 옥호정의 단장이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옥호정도〉는 1815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옥호정의 부지(현 종로구 삼청로 9길 21)는 현재 택지와 상업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옥호정도〉의 정세한 묘사는 화가가 실경을 재현하는 데에 큰 관심을 쏟았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속 공간은 북악산 자락의 산림 배경과 거주 공간으로 이분된다. 거주 공간은 행랑채와 본채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본채는 □자 형태로 구성되었다(그림 1-1).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葡萄架, 五味子架, 盤松, 房·廳·庫 등의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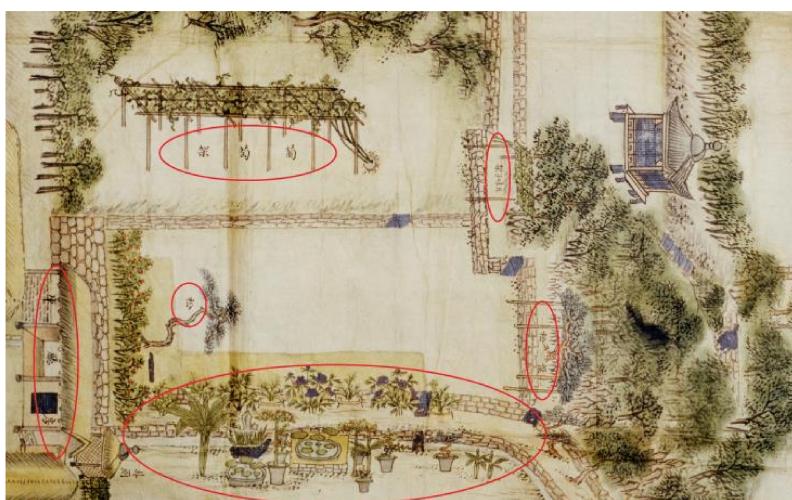
6) 김조순이 장생의 소유였던 옥호정을 구득한 과정은 鄭元容 編, 『東省校餘集』 15a “玉壺本姓張人所居 甲子余從張生請賣 張生許之 遂移去 年前作故 念之愴然”(정옥자, 2001 「『東省校餘集』의 성립」『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령출판, 226면 재인용)

7) 옥호정의 조성 시점은 1804-1815년 사이이나 완공 연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고전번역원 양기정의 해제에 따르면 『楓臘集』 2권은 1801년부터 1809년까지의 시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권에는 ‘玉壺’, ‘玉壺精舍’, ‘壺舍’라는 기록이 있어 옥호정의 신축 혹은 개축이 완료된 시점이 설령 1815년일지라도 이미 그 전부터 옥호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 참조.

가 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그림 1-2) 곳곳에 붉은색 글씨로 題巖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표 2). 이러한 요소는 옥호정 후원에 惠生泉이라는 샘이 있었고 ‘日觀石’, ‘玉壺洞天’, ‘乙亥壁’, ‘山光如邃古 石氣可長年’의 각자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중 ‘일관석’과 ‘산광여수고 석기가장년’ 각자는 지금까지도 전해진다(표 2). 이러한 요소들은 비록 현재 옥호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옥호정도>가 실제 정경을 재현한 것임을 증명한다.



<그림 1-1> <옥호정도>의 건축 배치. 글씨는 필자



<그림 1-2> <옥호정도>의 분재와 식목. 동그라미는 필자

주인의 취향에 따라 별서에 각자를 남기고 정원을 가꾸는 것은 당대 경화세족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별서는 때로 이국의 보물로 장식한 대저택이 되었으며 때로는 작은 규모의 茅屋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사대부 계층뿐 아니라 재력을 구비한 이하의 계층에까지 확산되었다.<sup>8)</sup> 이 중 洪良浩(1724-1802)의 四宜堂, 申緯(1769-1845)의 碧蘆舫, 沈象奎(1766-1838)의 嘉聲閣, 南公撤(1760-1840)의 又思親亭과 같은 곳은 큰 명성을 얻었다. 이 중 심상규와 남공철은 노론계 인사로서 김조순과도 깊이 교유하였다. 이들의 저택과 별서는 김조순의 옥호정보다도 규모가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상규의 별서에는 4만 권의 책과 奇花異草가 가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아로 만든 像과 통유리로 된 벽[滿壁鏡]을 수입하여 꾸몄다.<sup>9)</sup> 남공철의 별서에는 온갖 식목이 재배되었으며 고금의 法帖, 名畫, 銅玉이 소장되어 있었다.<sup>10)</sup> 경화세족들은 취향에 따라 높은 안목을 발휘하여 별서의 내부를 꾸몄다. 같은 맥락에서 김조순 또한 옥호정을 보도록으로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김조순 자신이 서화에 취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회화를 후원해 온 가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1)</sup>

〈옥호정도〉 속 후원에는 두 채의 초가 정자와 한 채의 기와 정자가 조성되어 있다. 후원은 花階를 배경으로 작은 연못과 샘이 있으며 본채의 정원에는 크고 작은 화분과 분재가 자리하였다(그림 1-2). 정성들여 키운 수목, 파초와 인공 연못은 소박해 보이는 정원이 실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것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별서 주인의 고아한 취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가진 경제적·문화적 지위를 응변한다. 옥호정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김조순 자신뿐 아니라 측

8) 김조순의 옥호정을 위시한 19세기 경화세족의 저택 및 별서 조성에 대해서는 홍경모(이종묵 옮김), 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39-46면; 심상규, 김조순, 남공철이 조성한 별서의 위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안대희, 2004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 115-118면 참조.

9) 심상규의 가정각의 위용에 대해서는 洪翰周, 『智水拈筆』(李佑成 編, 1984,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435-436면) 번역은 홍경모(이종묵 옮김), 앞의 책, 39-41면 참조.

10) 南公轍, 『潁翁再續藁』 권5, 「自碣銘」, 번역은 안대희, 앞의 논문, 117면 참조.

11) 안동 김문과 김조순의 미술 후원과 관련해서는 황정연, 2015 「金祖淳을 통해 본 19세기 安東金門의 골동서화애호와 감상 풍조」 『대동한문학』 43; 조규희, 2014 「조선의 유품 가문, 안동 김문이 펼친 인문과 예술 후원」 『새로 쓰는 예술사: 한국문화 이천년을 이끈 예술후원자들』, 글향아리 참조.

근에 의해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이들 글에는 옥호정을 ‘山齋’, ‘山墅’, ‘山館’이라 표기하여 외진 곳임을 강조하였다.<sup>12)</sup> 그러나 실제 옥호정에 드나들며 기록을 남긴 이들은 19세기 조선을 이끌어간 쟁쟁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김조순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도 지속적으로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sup>13)</sup> 심상규는 김조순과 비슷한 시기에 정계에 진출한 아래 김조순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심상규의 문집『斗室存稿』에는 옥호정을 언급한 시문이 수십 건 확인된다. 아울러 김조순의 문집에도 심상규의 옥호정 방문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인다.<sup>14)</sup> 김조순과 심상규 두 사람이 모일 때도 있었으나 함께 근무했던 남공철, 李相璜(1763-1841)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1780-1790년대에 규장각에서 함께 짧은 시절을 보낸 사이였다.<sup>15)</sup> 이로 인해 이들은 자연스럽게 경화세족으로서의 안목과 취향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옥호정에 대한 시문을 남긴 것은 김조순의 측근에 국한되지 않았다. 옥호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문을 남긴 이는 김조순의 손자인 孝明世子(1809-1830)였다.<sup>16)</sup> 효명세자는 왕위에 오른 적은 없으나 건강이 나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하여 3년간 대리청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효명세자는 왕이 아님에도 『列聖御製』에 글이 수록되는 등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한 1827-1830년에는 매년 커다란 규모의 국가 예연이 설행되었다. 예연에 필요한 음악, 무용, 미술의 감독에 효명세자가 직접 관여한 일도 있었다.<sup>17)</sup> 그간 효명세자와 안동 김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명세자가 외척을 견제

12) 沈象奎, 『斗室存稿』 권1, 「會玉壺」; 「題玉壺洞壁」; 권2, 「玉壺小集」; 「題玉泉亭石壁」; 권3, 「楓臯錢余玉壺山館 拈杜韻共賦」; 南秉哲, 『圭齋遺』「玉壺夏坐集序」 등의 예가 있다.

13) 옥호정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시문을 남긴 이들에 대해서는 정옥자, 앞의 책, 230-231면. 여기서 언급된 鄭元容, 李龍秀, 李光文, 李鶴秀 등은 모두 정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에 참여하였던 규장각 학사 15명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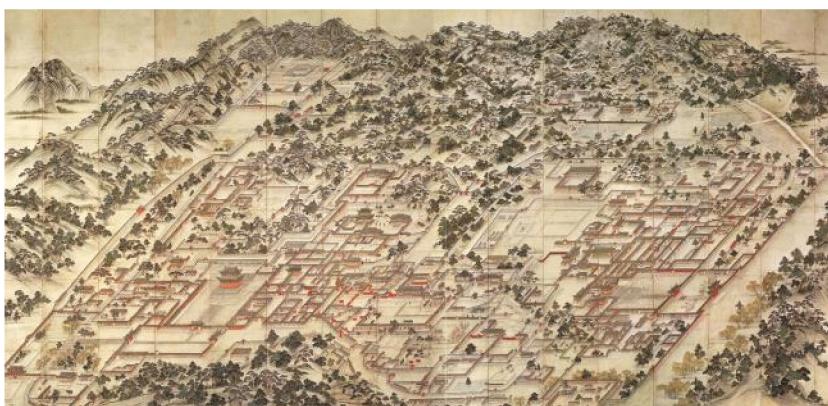
14) 金祖淳, 『楓臯集』 권2, 「雪夜憶斗室山寺清坐 用玉壺舊韻吟寄」; 권3, 「壺舍春夜 與履翁斗室 拈韻共賦」; 「壺舍春夜 與履翁斗室 拈韻共賦」.

15) 정옥자, 앞의 책, 75면.

16) 효명세자가 남긴 옥호정 관련 시문은 孝明世子, 『敬軒集』 권1, 「題玉壺山房」; 「題玉壺隱舍」; 권4, 「玉壺」; 「山堂思玉壺仙庄」; 孝明世子, 『淡如軒詩集』「奉和睿製山堂思玉壺之什」 등이 있다.

17) 효명세자의 음악 후원에 대해서는 송지원, 2014 「삶의 황폐함을 음률로 가꿔놓은 조선의

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효명세자는 김조순에게 맞섰던 세력을 등용함으로써 권력의 분산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는 김조순과 효명세자의 관계를 일부 반영할 뿐이다. 효명세자의 문집을 검토해보면 효명세자는 외조부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작자미상. 〈동궐도〉. 견본채색, 275×576cm. 고려대학교 박물관

효명세자의 주 거처로 알려진 창덕궁 연경당에서 옥호정은 직선거리로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연경당은 일반 사대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효명세자의 문인 취향으로 말미암아 창덕궁 내에는 연경당뿐 아니라 西山庵과 瓮山亭 같은 私家의 건축이 지어졌다. 효명세자의 ‘궁궐 속 별서’는 왕실의 사대부 취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었다.<sup>18)</sup> 또 하나 주목을 요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궐도〉(그림 3)와 〈옥호정도〉 사이에서 양식적 공통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 전체의 건축 도면을 충실히 회화화 한 결과이다. 건물 및 지물마다 명칭을 병

음악 후원자들』『새로 쓰는 예술사: 한국문화 이천년을 이끈 예술후원자들』, 글항아리, 231-242면; 효명세자의 미술 후원에 대해서는 박정혜, 2009 「순조·현종년간 궁중연향의 기록: 의궤와 도병」『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22-223면.

18) 효명세자의 사대부 취미 및 별서 경영에 대해서는 이종묵, 2002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한국한시연구』 10, 315-345면.

기하였으며 궁궐을 둘러싼 3,000그루의 수목도 꼼꼼하게 묘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구성은 〈옥호정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sup>19)</sup> 〈옥호정도〉 또한 건축물과 수목의 명칭을 병기하였으며 수목의 묘사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옥호정도〉의 정교한 구성과 수준 높은 필치는 이 그림이 기량 있는 화원화가에 의해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상 〈동궐도〉는 명작으로서 큰 주목을 받아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1828-1830년 사이에 효명세자의 주도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sup>20)</sup> 이 지점에서 〈동궐도〉와 〈옥호정도〉 사이에 보이는 공통적인 시각 요소들은 상당한 문화사적 의미가 있다. 김조순은 당대 경화세족 사이에서 유행한 별서의 경영, 서화의 후원, 정원의 조성 같은 상류 문화를 선도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취향은 효명세자가 궁궐 내에 사대부 양식의 별서를 짓고 새로운 형식의 그림을 후원하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들의 역사는 왕실과 사대부 문화가 상호 유동하였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sup>21)</sup>

### 3. 안동 김문의 별서 조성과 별서도 후원의 전통

조선 역사에서 별서를 경영하고 별서도를 후원하는 데에 능했던 가문 중 하나는 안동 김문이었다.<sup>22)</sup> 이 가문은 16세기에 중앙으로 진출한 이래 19세기 후반

19) 〈옥호정도〉와 〈동궐도〉의 수목 표현에서 유사성이 보인다는 선행 논의는 안휘준, 1991 「한국의 궁궐도」『동궐도』, 문화재관리국, 51면; 장진아, 앞의 논문, 145-146면.

20) 〈동궐도〉에 효명세자의 정치적 관심과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장진성, 「〈동궐도〉의 성격과 회화사적 의의」(고려대학교 박물관·동아대학교 박물관 편, 2012 『동궐』, 고려대학교 박물관·동아대학교 박물관) 274-275면.

21) 박철상은 경화세족이 화려한 중국의 문물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왕실과의 통혼과 여행 경험을 꼽았다. 박철상, 2014 「심상규의 가성각: 19세기 문화를 이끈 경화세족」『서재에 살다』, 문학동네, 174면.

22) 17세기에 안동 김문은 안동과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강원 일대에 별서를 경영하였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은 漢湖, 저자도, 백운산, 화악산, 東郊, 東郭, 철원의 별서이다. 안동 김

까지 수차례 정치적 부침을 겪으면서도 오랜 기간 名家로 군림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별서와 별서도를 가문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 데에 적극 활용하였다. 안동 김문이 처음 서울에 별서의 터를 잡은 것은 청풍계(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3길 22-10)였다. 16세기 초에 金永鉢(1446-1502)가 이곳에 터를 잡은 후 청풍계는 遊賞處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 시기 문현에서 청풍계는 시문을 창작하는 아회의 공간으로 묘사되었다.<sup>23)</sup>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청풍계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다. 1607년 청풍계의 주인이 된 金尙容(1561-1637)은 병자호란 때 서거하였다. 이후 그의 동생 金尙憲(1570-1652)이 斥和를 주장하다 청나라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김상용의 죽음이 순절로 인정받으면서 이 두 형제는 忠臣의 표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풍계는 명성을 얻었고 17세기 후반 老論이 약진하자 그 위상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동 김문이 청풍계를 그림으로 남기는 일이 생겨났다. 오랜 기간 안동 김문의 후원을 받았던 鄭敾(1676-1759)은 청풍계를 포함한 이 지역 경치를 여러 차례 그렸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에 남아 있는 정선의 《장동팔경첩》 두 건에는 모두 청풍계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4-5). 이 밖에도 청풍계가 단독 화축으로 제작된 작품이 고려대학교 박물관(그림 6), 간송미술관, 삼성미술관 Leeum, 동아대학교 박물관 등에 남아 있다. 여러 형식의 ‘청풍계도’가 유전하는 것은 당시에 이에 대한 수요가 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노론 학통의 상징으로서 청풍계는 한 가문의 소유지 이상의 의미가 되었던 것이다.<sup>24)</sup>

문이 17세기에 경영한 별서에 대해서는 김학수, 2000 「17세기의 명가 장동김씨」 『문현과 해석』 12, 29면, 46-48면.

23) 안동 김문이 청풍계와 장동 일대에 터를 잡게 된 역사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16-22면; 강혜선, 2011 「인왕산 청풍계의 문학적 전통」 『한문학보』 25; 박종훈, 2015 「성호기념관 소장 『청풍계첩(靑楓禊帖)』 일고(一考)」 『한국시가문화연구』 36.

24) 〈청풍계도〉가 개인 사유지의 재현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상화로서 유통된 현상에 대해서는 조규희, 2006 「별서도(別墅圖)에서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로: 정선(鄭敾)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5-206면; 청풍계에 부여된 인문역사적 경관으로서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한 성과는 윤진영, 2013 「조선후기 西村의 명소와 진경산수화의 재조명」 『서울학연구』 50, 71-79면.



〈그림 4〉 정선, 〈청풍계〉,  
《장동팔경첩》, 1755년경,  
지본담채, 33.0×29.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 정선, 〈청풍계〉,  
《장동팔경첩》, 1751년경,  
지본담채, 33.7×29.5cm,  
간송미술관



〈그림 6〉 정선,  
〈청풍계도〉, 1730년,  
지본채색, 96.2×36.0cm,  
고려대박물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谷雲精舍도 청풍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안동 김문의 중요한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이 별서는 김상현의 손자인 金壽增(1624-1701)이 조성한 것이다. 김수증은 1675년 스승 宋時烈(1607-1689)과 동생 金壽恒(1629-1689)이 유배되자 관직을 버리고 화천에서 은거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대에 九曲을 정하여 酡唱하고 그림으로 남겼다. 구곡과 곡운정사 내의 瓮水亭을 그린 《谷雲九曲圖帖》은 1682년에 제작되었다(그림 7). 사실상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안에서 구곡을 배경으로 별서를 경영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 있는 행위였다. 성리학의 개조인 朱熹(1130-1200)는 무이산에 은거하며 구곡을 경영하였는데 이 전통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노론의 개조인 李珥(1536-1584)는 고산구곡을 경영하였으며 송시열은 화양구곡을 경영하였다. 김수증의

곡운구곡 경영은 주희-이이-송시열로 이어진 道統의 계승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곡운구곡도첩》의 제작도 〈무이구곡도〉와 〈고산구곡도〉의 전통을 잇는 행위라 할 수 있다.<sup>25)</sup>



〈그림 7〉 조세길, 〈농수정도〉,  
《곡운구곡도첩》, 1682년,  
견본채색. 37.5×54.0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8〉 김홍도 외, 《고산구곡시화도병》, 1803년, 지본담채, 138×562cm, 개인소장

이러한 역사 속에서 별서의 경영과 별서도의 후원은 안동 김문 내에서 점차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후손들은 신변의 변화가 있거나 가문의 현창이 필요할 시점에 청풍계와 곡운정사를 방문하였다. 金養根(1734-1799)에 따르면 청풍계는 宗會가 열리는 공간이자 개인적 참배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sup>26)</sup> 청풍계에서 祭祀를 지내는 행위가 선조를 추숭하며 충신을 기리는 의미가 된 것이다. 김홍근은 ‘경술(1850)년 가을 김창협 고택에 이르렀다가 마음을 바꾸어 철원 삼부로 옮겨 백운산 동쪽에 있는 곡운 선생의 사원을 배알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겼다.<sup>27)</sup> 이는 안동 김문의 후손들이 꾸준히 강원도의 곡운정사를 가꾸고 방문하

25) 김수중의 곡운구곡 경영과 〈곡운구곡도〉 제작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36-42면; 구곡도의 제작과 노론 도통의 계보에 대한 논의는 조규희, 2006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역사와 경계』 61.

26) 金養根, 『東埜集』 권2, 「淸風溪記所見」; 권1, 「淸風溪宗會述懷韻」.

27) 金興根, 『游觀集』 권4, 「谷雲九曲圖跋」.

였음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는 청풍계의 공적인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생겨났다. 정조, 순조, 효명세자, 憲宗(1834-1849년 재위), 哲宗(1849-1864년 재위)이 차례로 청풍계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1790년 정조는 김조순과 함께 청풍계를 방문하여 김상용의 후손에게 錄用을 내리고 가옥을 수리해 주었다.<sup>28)</sup> 국왕의 방문은 名家에 대한 존경의 의미이자 충을 드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후 1828년 효명세자는 과거에 입격한 유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상용의 8대 손을 만났다. 이 때 효명세자는 그가 청풍계에 기거하는지를 물었다.<sup>29)</sup> 이는 효명세자가 안동 김문과 청풍계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같은 해 효명세자는 1790년에 정조가 행하였던 동선대로 청풍계를 방문하였다. 아울러 청풍계의 太古亭에서 소년들[童蒙]을 모아 시문을 짓게 한 후 270명에게 상을 내렸다.<sup>30)</sup> 1829년 같은 날에도 전 해와 마찬가지로 태고정에 소년들을 모아 시를 짓게 하고 35명에게 상을 내렸다.<sup>31)</sup> 이러한 행사는 국왕이 미래의 신료 집단을 만나는 계기이자 명가에 대한 왕실의 예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1870년경에 간행된 『東國輿地備攷』의 ‘金尙容第’조에도 순조와 효명세자가 청풍계를 방문한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sup>32)</sup> 1935년 文一平(1888-1939)은 청풍계를 순조, 현종, 철종이 방문한 장소로 소개하였다.<sup>33)</sup>

정조가 1800년에 타계한 후 김조순은 1802년에 국구가 되었다. 이 때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도세자의 추승 문제로 時派와 辟派로 나뉘어 있던 가문의 결집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김조순은 1803년과 1804년에 각각 별서도의 제작을 기획하였다. 우선 1803년 김조순은 이이가 경영한 고산구

28) 『正祖實錄』 권29, 정조 14년 2월 28일 己卯.

29) 『承政院日記』 2227책, 순조 28년 3월 8일 丁未.

30) 『承政院日記』 2227책, 순조 28년 3월 13일 壬子.

31) 『承政院日記』 2239책, 순조 29년 3월 13일 丁未.

3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 1956 『東國輿地備攷』 56면 “金尙容第 在□□坊彰義洞清風溪 有太古亭 凜然堂 奉仙源畫像 後孫居在近洞 故世稱彰義洞金氏 溪上有石刻曰 大明日月百世清風八字○純廟 翼宗 詧於春日臨幸”

33) 『조선일보』 1935.9.19 문일평, 「근교산악사화 1. 인왕산 (2) 仙源舊基인 太古亭」(방응모 편, 1946 『湖岩全集』 3, 朝光社, 165-167면에 재수록).

곡을 그린 《高山九曲詩畫圖屏》의 제작을 주도하였다(그림 8). 안동 김문에게 있어 고산구곡은 학통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성지였다.<sup>34)</sup> 이 병풍의 서문과跋문에는 이이와 金昌翕(1653-1722)의 글이 선택되었다. 김상현의 증손자인 김창흡은 시파와 벽파를 아우르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병풍은 10인의 시와 10인의 그림으로 합작이 이루어졌다. 詩作에는 김조순 외에 안동 김문 인사 金履永, 金明淳, 金羲淳, 金達淳, 金學淳, 金近淳, 金可淳, 金邁淳, 金履秀가 참여하였다. 그림은 金履煥, 金弘道, 金得臣, 李寅文, 尹濟弘, 吳珣, 李在魯, 文慶集, 金履承, 李義聲이 그렸다. 여기에 글씨를 쓴 爾漢芝까지 합치면 총 21명이 병풍의 제작에 참가하였다.<sup>35)</sup> 고산구곡이라는 화제와 파별을 아우르는 인사는 모두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거했을 것이다. 이듬해인 1804년에는 1682년에 제작된 《곡운구곡도첩》이 개장되었다. 오래된 가전 화첩의 수리는 혼란 일이지만 그 시점에 개장이 이루어진 것은 김조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노론의 영수로서 안동 김문은 가문을 현창하고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창안해 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별서의 경영과 별서도의 후원을 활용한 것이다.

#### 4. 이하응의 정권 장악과 〈석파정도〉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7길 14에 위치한 석파정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서울의 바깥이었다(그림 9). 18세기까지 이곳은 왕실 종친의 것도 안동 김문의 것도 아니었다. 현재 석파정에는 두 개의 각자가 남아 있다(표 2). 하나는 ‘三溪洞’이고 다른 하나는 ‘巢水雲簾岩 寒水翁書贈 友人定而時 辛丑歲也’라 하여 한수옹이 각자의 본을 써서 신축년에 주었다는 내용이다. 신축은 1721년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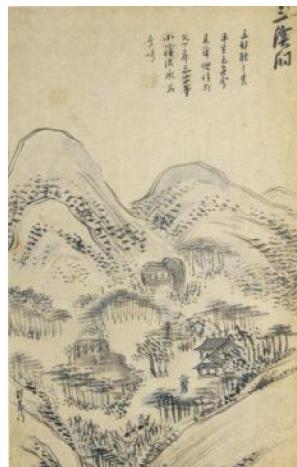
34) 1803년 《고산구곡시화도병》의 기획과 1804년 《곡운구곡도첩》 개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규희, 2006 「《谷雲九曲圖帖》의 多層的 의미」 『美術史論壇』 23, 266-270면; 조규희, 2014 앞의 논문, 187-201면.

35) 이상원은 이 병풍이 1803년 순조가 친정을 준비하던 시기에 김조순의 주도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병풍의 제작에 참가한 인물들의 학통과 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원, 2004 「『高山九曲詩畫屏』의 구성상 특징과 所載 詩文에 대한 검토」 『국제어문』 31, 96-99면.

글씨는 한수옹 權尙夏(1641-1721)가 당시 삼계동의 주인이었던 趙正萬(1656-1739)에게 써준 것이다. 조정만과 권상하는 김수항-송시열의 학통을 잇는 대표적인 노론계 인사이며 안동 김문과도 친밀한 관계였다. 1753년 權晨應(1728-1787)이 그린 〈삼계동도〉(그림 10)에는 ‘삼계동’과 ‘소수운련암’의 각자가 모두 그려져 있다. 이는 이 두 개의 석각이 적어도 1753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조정만의 별서가 안동 김문에게 양도되었는지는 찾지 못하였다.<sup>36)</sup> 다만 이 별서 부지를 노론 계열에서 소유해 왔으며 오랜 기간 이들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석파정, 청풍계, 옥호정의 위치  
(〈도성대지도〉 부분, 지본채색,  
180×213cm, 서울역사박물관)  
글씨는 필자



〈그림 10〉 권신옹, 〈삼계동〉,  
《북악십경》, 1753년,  
지본담채, 41.7×25.7cm,  
개인소장

그런데 이 별서 부지가 김홍근의 소유였다가 이하옹의 손에 들어간 내력은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관련 일화는 우선 『매천야록』에 전한다. 1863년 어린 고

36) 안동 김문과 조정만 가문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昌業(1658-1721)의 아들인 金信謙(1693-1738)이 조정만을 보러 삼계동을 방문한 데에 대한 기록은 趙正萬, 『寤齋集』 권2, 「金君尊甫 信謙 為見余 不由城中 逆行三十里 來到三溪洞 遂吟短律 以謝其意」.

종의 즉위로 섭정을 하게 된 이하옹은 당시 외척으로 세를 떨치던 안동 김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하옹은 당시 안동 김문의 수장이었던 김홍근과 대립하였으며 급기야 김홍근의 삼계정에도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 이하옹은 삼계정의 매각을 요청하지만 김홍근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하옹은 왕이 한번 거한 곳은 ‘임시 행궁’으로서 다시는 신하가 들어가는 못한다는 불문율을 이용하여 고종을 삼계정에 하룻밤 머물게 하였다.<sup>37)</sup> 이로써 삼계정은 ‘왕이 행차 하였던 곳’인 ‘行次所’가 되어 김홍근은 다시 이곳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삼계정을 차지한 이하옹은 자신의 호를 따 별서를 석파정이라 개칭하였다. 『매천야록』 외에 화가 허련(許鍊, 1809-1892)이 삼계정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도 있다. 허련은 1866년 4월 초파일부터 한 달 가량 김홍근의 초대로 삼계정에 머물렀다.<sup>38)</sup> 여기서 허련은 김홍근이 수장하고 있던 고금서화를 품평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867년 2월에는 三溪精舍에서 이하옹의 주최로 李漢喆(1808-1902년 이후), 劉淑(1827-1873), 丁學敎(1832-1914)가 함께 『又是蘭盟』이라는 화첩을 꾸몄다는 기록이 있다.<sup>39)</sup> 이는 1866년 5월에서 1867년 2월 사이에 삼계정의 주인이 김홍근에서 이하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고종 대 왕실 문서에서도 관련 기록이 산견된다. 1867년 8월 『승정원일기』에는 고종이 활쏘기 대회 시상 차 蕩春臺에 친림하였을 때 삼계정을 行殿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아예 ‘삼계정 행전’이라 표기되었다. 1869년에는 ‘三溪亭大院君行次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적어도 1869년경 부터는 삼계정이 이하옹의 사유지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sup>40)</sup> 이후

37) 황현(임형택 외 옮김), 2005 『(역주)매천야록』, 문학과지성사, 34-35면.

38) 許維(金泳鎬 옮김), 1976 『小癡實錄』, 瑞文堂, 99-100면, 원문은 같은 책, 185-186면.

39) 석계학인이라는 필명을 쓴 洪淳爌은 1867년 2월 仲春에 삼계정에서 이하옹이 이한철, 유숙, 정학교와 함께 꾸민 《우시난맹》 화첩이 자신이 수집한 東瀛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엽을 소개하였는데 그림에는 ‘歲丁卯仲春畫于三溪精舍’라는 제발이 남아 있다. 石谿學人, 1936 「韓末政客遺墨襍攷」 『新東亞』 6-3, 21-23면.

40) 『承政院日記』 고종 4년 8월 30일 庚戌 “傳曰 蕩春臺親臨賞試射時 行殿以三溪亭爲之”: 4년 9월 20일 庚午 “大駕詣三溪亭行殿入幕次後 藥房·內閣·政院·玉堂口傳問安 答曰 知道”; 6년 12월 14일 辛亥 “傳曰 淑夫人李氏發軺安葬 大院君府大夫夫人粟米飲 藥房副提調 與右承旨 煎封 府夫人 旣入闕行次矣 都承旨 進詣三溪亭大院君行次所 問候以來”

왕실 기록에도 꾸준하게 ‘삼계동 행차소’라는 표현이 보인다.<sup>41)</sup> 1873년에는 병조 판서가 대원군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삼계동’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sup>42)</sup> 이 같은 증거들은 이하옹이 석파정으로 별서의 이름을 바꾼 뒤로도 상당 기간 삼계정 혹은 삼계동이라는 본래의 명칭이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정권을 장악하고 별서를 차지한 것과는 별개로 오랜 세월 쌓여온 문화적 관행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하옹에게 있어 문화 권리의 장악이 정치적 패권의 탈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하옹은 평생을 두고 작화 활동을 한 예술가였다. 자기 스스로가 재주 있는 화가이자 비평가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늘 뛰어난 화가가 있었다. 아울러 이하옹은 서화를 통하여 자신의 寓意를 표현하고 그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하옹이 〈석파정도〉의 작가를 이한철로 기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한철은 차비대령화원 녹취재 역사상 최장기간 고득점을 유지한 화가였다.<sup>43)</sup> 아울러 이하옹과는 오랜 기간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사적인 주문을 받았다. 이한철이 이하옹의 초상화를 여러 점 제작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한철은 1869년 이하옹의 초상화 3점을 제작하였으며 1880년에는 2점을 추가로 제작하였다.<sup>44)</sup> 〈석파정도〉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하옹의 활동 이력을 통하여 〈석파정도〉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하옹은 설정을 시작한 1865년부터 경복궁의 중건에 큰 힘을 쏟았다. 아울러 외척 세력의 축출 및 서원 철폐를 주도하였다. 이때부터 1873년 고종이 親政을 선포할 때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석파정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1866-1867년이 극점에 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면 〈석파정도〉의 제작도 이즈음이 될 가능성

41) 『承政院日記』 고종 9년 6월 2일 乙卯; 9년 6월 5일 戊午.

42) 『承政院日記』 고종 10년 1월 15일 乙未.

43) 이한철은 규장각 차비대령화원제 녹취재에 1840년부터 1873년까지 총 34년간 64회 응시 하였다. 이는 차비대령화원의 역사상 녹취재에 가장 오랜 기간 응시한 기록이다. 이 중 이한철은 46회에 걸쳐 1-2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화문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한철의 녹취재 응시와 관련한 내용은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돌베개, 86 · 519면.

44) 흥선대원군과 이한철이 각별한 관계를 맺은 데에 대해서는 이경화, 2014 「그림자 국왕의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이하옹초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14, 33-35면.

이 높다. 〈석파정도〉의 왼쪽 하단에는 ‘李漢喆印’이라는 인장(그림 2-1)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한철인’ 인장을 이한철이 1870년대에 주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았다. 실제 〈석파정도〉의 인장과 유사한 사례가 1872년 이후에 제작된 이한철의 〈花外小車圖〉, 〈訪華隨柳圖〉, 〈班衣獻樽圖〉에서 확인된다.<sup>45)</sup> 물론 이한철의 활동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이 김홍근에 의해 주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이한철의 유작 100여 점 가운데 초상화를 포함하여 안동 김문에서 주문한 그림은 발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1870년 전후에 이하옹과 이한철이 맺었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 작품은 1866년에서 1873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46)</sup> 그렇다면 이하옹은 〈석파정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일까?



〈그림 2-1〉 이한철 인장



〈그림 2-2〉 〈도성대지도〉(위)와 〈석파정도〉(아래)의 삼각산 부분

〈석파정도〉의 구성은 전통적인 별서도의 계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유독 넓은 화면을 활용하여 원경까지 포착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래 별서도는 소유지의 주인과 측근들이 주 열람자이기 때문에 첨과 축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석파정도〉는 보기 드물게도 병풍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45) 1870년대에 이한철이 주로 사용한 ‘李漢喆印’의 인장과 이것이 사용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희정, 2014 「希園 李漢喆 繪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6-137면.

46)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이 본고에 대한 의문 사항과 의견을 주셨다. 그 중 〈석파정도〉의 주 문자 문제, 제작 시기, 화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의견은 본고의 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논의에 의미 있는 조언을 준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현재의 석파정의 모습은 일부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석파정도〉와 실물을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는 없다. 그림에 보이는 안채가 실제는 사랑채이고 몇몇 건물의 방향이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지형, 부지, 건물 양식, 물길 등의 재현이 실제와 거의 부합한다. 1958년에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중국식 별당도 그림과 실물이 완전히 일치한다(표 1).<sup>47)</sup> 따라서 그림 속 느티나무, 회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분재의 묘사도 당시 실경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원과 수목에 대한 관심은 〈옥호정도〉에서도 관찰되는 요소이다.

〈표 1〉 〈석파정도〉와 현재 석파정의 실경 비교

	〈석파정도〉	현재의 석파정	비고
중국식 정자 (1)			현재 남아 있는 정자는 〈석파정도〉에 나오는 정자(1)의 사각형 구조와 정자(2)의 아치형 다리가 결합된 형태이다.
중국식 정자 (2)			현재 석파정에는 소나무 노거수가 있다. 〈석파정도〉의 것은 소나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거수			벽돌로 지은 별당은 그림과 일치한다.
중국식 별당			벽돌로 지은 별당은 그림과 일치한다.

47) 벽돌로 지어진 중국식 별당은 현재 종로구 자하문로 309로 옮겨진 상태이다. 1958년에 孫在馨(1903-1981)이 별당 건물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 갖고 현재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1815년 경 제작된 〈옥호정도〉와 1866년 이후에 제작된 〈석파정도〉는 권력자의 별서를 그렸다는 점, 풍수지리를 반영한 구도를 선택한 점, 수목의 재현에 큰 관심을 쏟았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별서도 가운데에는 별서의 평면도와 수종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집과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던 경화세족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옥호정도〉와 〈석파정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서 자체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있다. 〈옥호정도〉에서는 별서와 배산 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옥호정만을 정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소유주의 취향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이에 반해 〈석파정도〉는 석파정 너머의 원산과 같은 자연 경관 뿐만 아니라 인문 경관의 묘사까지도 포함시켰다. 환경 요소를 두루 포섭함으로써 석파정과 주변이 맺는 관계 안에서 석파정의 위상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그림 2-3〉 〈석파정도〉의 비봉, 문수봉, 인수봉.  
글씨는 필자.



〈그림 2-4〉 구글 어쓰(Google Earth)로 본 석파정과 삼각산.

먼저 〈석파정도〉에 재현된 자연 경관을 살펴보면 별서 너머의 원산에 주목을 요한다(그림 2). 필자의 답사에 따르면 〈석파정도〉의 원산 묘사는 화가가 특정 장소에서 실제 사생을 통하여 그릴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그림은 현재의 자하문 터널[창의문] 쪽에서 석파정을 내려다 본 구도인데 실제 그 자리에서는 원산의 봉우리들을 〈석파정도〉처럼 겹겹이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파정도〉에는 삼각산맥의 山峰들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를 〈도성대지도〉와

비교해 보면 원경에 보이는 세 개의 봉우리는 비봉, 문수봉, 인수봉으로 추정된다(그림 2-2). 화가는 사생을 통하여 원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도성지도에서 볼 수 있는 산봉우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구글 어쓰(Google Earth)로 보면 세 봉우리가 비봉, 문수봉, 인수봉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그림 2-3, 2-4). 이는 <석파정도>가 공기원근법을 활용하여 원근을 강조하였을 뿐 <도성대지도>에서 선택한 산봉우리를 그대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이하옹의 함축된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삼각산은 조선 건국의 상징이며 王都의 지표(landmark)였다. <옥호정도>에서 별서의 배경으로 북악산 白蓮峯의 재현에 집중한 것은 기존 별서도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석파정도>는 유독 광각으로 삼각산맥을 모두 포착하여 그 한가운데에 석파정을 위치시켰다. <석파정도>에서는 별서보다도 조선의 창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삼각산의 묘사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 요컨대 <옥호정도>가 김조순의 문인적 이상을 투영한 결과라면 <석파정도>는 자신이 왕통의 맥을 잇고 있다는 이하옹의 자기 인식의 시각화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석파정도>에 재현된 인문 경관이다. 그림의 근경에는 민가가 묘사되었으며 별서 너머에는 여러 碑石과 建築地가 보인다(그림 2-5). 이를 <해동지도>(그림 11)와 비교해보면 사각형이 석파정의 자리이고 삼각형은 창의문이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碑閣, 佛岩, 당춘대, 造紙署는 각각 <석파정도>에 재현된 비각과 전각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석파정이 가진 史蹟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해준다. <석파정도>는 석파정을 주변의 인문적 지표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림 2-5〉 <석파정도>의 경물. 글씨는 필자



〈그림 11〉 석파정 일대의 사적 배치, <해동지도> 부분. 규장각. 도형은 필자

또 하나 〈석파정도〉가 〈옥호정도〉와 변별되는 요소는 각서를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의 문인들은 자신의 별서나 名勝의 암각에 자신의 필적을 남기곤 하였다. 이런 행위는 그 장소를 名所化하는 데에 기여하였다.<sup>48)</sup> 조선의 문인들은 자신의 학맥과 가문을 높이기 위하여 각서의 글씨를 朱熹나 崇禎帝 같은 중국의 先人, 혹은 자기 스승의 필적을 集字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에서도 이러한 각자를 재현하여 문화적 권위를 높이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삼계동도〉(그림 10)와 〈옥호정도〉(그림 1)에서 각서가 재현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표 2). 〈옥호정도〉는 총 4군데의 석각이 모두 그림에 재현되었다.<sup>49)</sup> 그런데 〈석파정도〉에는 〈삼계동도〉에 재현된 ‘삼계동’과 ‘소수운령암’의 각자가 빠져 있다(표 2). 그 누구보다도 석파정 부지에 얹힌 노론의 전통을 부정해야 했던 이하웅이 의도적으로 각자를 누락시켰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표 2〉 옥호정 및 석파정의 刻字와 그림 속 재현 비교

	내용	각자	그림
옥호정	日觀石		
	山光如蓬古 石氣可長年		

48) 고연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명소에 각자를 남기는 전통 하에 노론과 남인이 각자를 두고 상호 경쟁한 역사를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강산 만폭동에 있는 각자가 노론 그룹에서 송시열과 김수중의 것으로 추앙된 역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고연희, 2011 「겸재의 그림에 담긴 바위글씨」,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태학사.

49) 장진아는 이 석각이 1814년 경 김조순의 부탁으로 徐榮輔(1759-1816)에 의해 완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진아, 앞의 논문, 141-142면 참조.

석파정	巢水雲簾庵 寒水翁書贈 友人定而時 辛丑歲也		
	三溪洞		

그림 10 &lt;삼계동도&gt;의 부분

그림 10 &lt;삼계동도&gt;의 부분

마지막으로 <석파정도>가 <옥호정도>를 위시한 전통적인 별서도와 달리 병풍으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옥호정도>의 화면은 약 193×150cm이고 작품이 완성된 아래 그간 한 번도 장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선행 연구자인 장진아는 <옥호정도>가 관아도나 궁궐도와 같은 界畫 형식을 따랐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주문자가 국구였기 때문에 그림을 왕실 문서에 사용하는 고급 종이에 그린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0)</sup> 지금껏 <옥호정도>가 장황이 된 적이 없음은 이 그림이 공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병도 이전의 소유자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옥호정도>는 안동 김문 내부에서 만 秘藏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석파정도>는 약 141×251.5cm 크기의 병풍이다. 정작 <옥호정도>와 <석파정도>는 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파정도>가 <옥호정도>보다 훨씬 장대한 규모라는 느낌을 준다. 그 까닭은 우선 앞서 논의한대로 <석파정도>가 자연 및 인문 경관을 광각으로 넓게 포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석파정도>에 사용된 병풍이라는 장황에서 기인할 것이다. 병풍은 보다 많은 관자에게 노출하기 쉬운 형식이다. 병풍은 일정 공간에 한번 배설되면 방문자들에게 무시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하옹의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는 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50) <옥호정도>가 왕실문서 작성에 주로 활용하던 도련저주지를 사용하였으며 <옥호정도>의 장황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의는 장진아, 앞의 논문, 135-136면; <옥호정도>가 궁중 계화 형식과 유사하다는 논의는 장진아, 앞의 논문, 143-147면.

## 5. 별서의 소유권 이동과 문화 권력 경쟁

19세기 최고의 권세가였던 김조순과 이하옹이 서거한 후에 그들의 별서는 누가 차지하였을까? 옥호정은 김조순의 장남인 金道根(1785-1840)이 물려받았다. 김유근의 문집 『黃山集』에는 옥호정과 관련한 시문이 여럿 보인다. 1852년에는 김유근의 동생 金左根(1797-1869)이 옥호정을 수리한 기록이 보인다.<sup>51)</sup> 그 이후로는 한 동안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903년 5월 『황성신문』에 옥호정에서 便書會가 열렸다는 단신이 실려 있다.<sup>52)</sup> 그러나 이 행사를 누가 어떤 이유에서 주최하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사를 통하여 20세기 초반까지 옥호정이 문예의 산실이자 회동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7년 『매일신보』 기사에는 李載覺(1874-1935) 후작, 趙重應(1860-1919) 자작, 韓昌洙(1862-1933) 남작, 趙東潤(1871-1923) 남작,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1862-1936) 매일신보 사장이 옥호정에서 雅宴을 가졌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sup>53)</sup> 이재각을 포함한 조선귀족들은 친일 행위를 통하여 작위를 수여받은 자들이며 아베 미츠이에는 내선 일체를 주장한 우익 언론인이었다. 1917년과 1927년에 발간된 『京城府管內地籍目錄』에는 옥호정의 소유주가 이재각으로 기재되어 있다.<sup>54)</sup> 이재각은 사도세자의 혼손으로서 한일병합 과정에서 일제에 협조한 인물이었다. 1935년 이재각이 서거한 이후로는 그의 아들 李德鎔(1923-1952)이 별서를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덕용은 한국전쟁 중에 사망하였으며 옥호정도 전쟁 중에 크게 파괴되었다.<sup>55)</sup>

51) 鄭元容, 『經山集』 권3, 「癸酉臘 謁楓阜太史于玉壺之居 命賦七古 仍賜和章 尚寶莊之 哲嗣 荷屋端揆 左根 重修竹亭 邀諸僚會飲 謹次原韻」(장진아, 앞의 논문, 141면에서 재인용).

52) 『황성신문』 1903.5.5 「便書設會 再昨日 三清洞 玉壺亭에서 驚人墨客이 多數會集하야 便書會를 설행한 안다더라.」

53) 『毎日申報』 1917.6.15 「玉壺亭 雅宴」.

54) 陳內六助, 1917 『京城府管內地籍目錄』, 京城共同株式會社, 151면(1982, 大林圖書出版社 영인본); 陳內六助, 1927 『京城府管內地籍目錄』, 京城共同株式會社, 344면(1982 大林圖書出版社 영인본).

55) 이병도는 1961년에 옥호정 부지인 삼청동 133-1호와 133-2호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역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옥호정 구역의 주인은 장세만과 장병조였다. 이병도는 이전의 주인



〈그림 12〉 이하옹, 이재면, 이준용, 이우, 이청

석파정은 이하옹의 직계 자손들에게 순조롭게 소유권이 계승되었다. 이하옹의 아들 李載冕(1845-1912), 손자 李浚鎔(1870-1917, 1912년부터 李浚으로 개명), 증손자 李鍾(1912-1945), 고손자 李清(1936년 생)까지 5대가 상속을 이어갔다 (그림 12). 金允植(1835-1922)은 석파정에서 가진 모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록을 남겼다. 1909-1911년 사이에 특히 이재면이 김윤식을 석파정에 초대한 경우가 많았다.<sup>56)</sup> 이러한 기록은 석파정이 식민시기에도 특권층의 사교와 시회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려준다. 1914년 10월 『매일신보』에는 이준용과 아베 미초이에 등이 석파정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가 보인다(그림 13).<sup>57)</sup> 1916년에는 이준용이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1858-1927) 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1886-1963) 비서관, 후지나미 요시츠라(藤波義貫, 생몰년 미상) 통역관을 석파정에 초대하였다.<sup>58)</sup> 이 시기 기록에서는 ‘삼계정’ 대신에 ‘석파정’의 명칭만 보인다. 이러한 기사들은 식민시기에도 왕실 종친들이 유서 깊은 별서를 사교의 장으로 활용한 역사를 보여준다. 일본에서 쇼군이 중심이 되어 각계 인사들이 함께 수창함으로써 정치적 결집을 도모하는 행위는 오랜 전통이었다.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문인 계층에서 아회를 표방하여 여러 인물들이 詩書畫를 나누는 것은 유서 깊은 전통이었다. 양측의 전통은 문학적 공통분모를 필요로 하던 시

을 이재각이라 기록하였다. 李丙燾, 앞의 논문, 2면.

56) 金允植, 『雲養集』 권6, 「翌日會于三溪洞雲峴宮別墅完興丈招飲之局也」: 「題三溪洞石庭山庄 辛亥春」.

57) 『毎日申報』 1914.10.29 「石坡亭의 秋色」.

58) 『毎日申報』 1916.10.19 「石坡亭午餐會」.

대에 더 쉽고 강하게 결합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의 인사들은 시회를 표방하는 모임을 자주 가졌다. 이것은 때로 그 자체로서 정치적 회동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정치적 갈등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친들은 망국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혹은 망국을 계기로 하여 명소의 소유권을 장악하였다. 아울러 그 명소가 가진 상징과 의미를 십분 독점함으로써 문화 권력에서의 우위도 장악해 나갔다. 석파정은 해방 직후까지도 이하옹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가 1948년에 일반에 매각되었다.<sup>59)</sup>



〈그림 13〉『毎日申報』1914년 10월 29일 기사.

이준용과 아베 미츠이에 등의 모습

그렇다면 안동 김문의 4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청풍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1870년경에 간행된 『동국여지비고』에는 청풍계가 ‘김상용의 집’으로 표기되어 있다.<sup>60)</sup> 이는 고종 대까지도 여전히 청풍계가 안동 김문의 상징적 위상과 결부되어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17년에 출간된 『경성부관재지적목록』에 따

59) 『漢城日報』1948.8.19 「別莊까지 三千五百萬圓 興韓財團이 雲峴宮買收 宮闕팔어 延命하는 李朝後裔」.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하옹 가문에 남아 있던 3대의 과부들은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현궁과 석파정을 흥한재단에 3,500만원에 매각하였다. 이후 석파정은 고아원, 병원, 국민대학교 재단, 개인으로 소유권이 옮겨갔다. 1948년 이후 석파정의 소유권 이동에 대한 내용은 『동아일보』1977.12.27 「史實 속의 우리 동네 (101) 付岩洞」; 『경향신문』1997.11.1 「문화재를 찾아서(42) 서울 부암동 石坡亭」 기사 참조.

60) 각주 32) 참조.

르면 청풍계 부지는 ‘창덕궁’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sup>61)</sup> 1917년에 고종은 ‘덕수궁’에 거하고 순종이 ‘창덕궁’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창덕궁’은 순종 혹은 왕실 전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1924년 『동아일보』에서는 청풍계를 소개하면서 ‘선원 김상용씨의 구택입니다. (중략) 이 집이 지금은 일본 사람의 집이랍니다. 태황제 고종 계실 때 이 집이 궁중 소속이 되게 된 것을 특별히 도로 내어 주셨지요. 그 뒤야 말할 것 있습니까?’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62)</sup> 이 기사는 고종이 재임하고 있던 1907년 이전에 이미 청풍계가 왕실의 소유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 또한 종친 세력이 안동 김문이 쌓아온 권세와 특권을 탈취하고자 취한 일련의 조치와 맥락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종이 1919년에 봉어하였으므로 청풍계는 1919년 이전에 이미 일본인에게 양도되었을 것이다. 1927년에 출간된 『경성부관재지적목록』에는 청풍계의 소유자가 ‘高野濱’이라고 되어 있다.<sup>63)</sup> 高野濱(1895-?)은 미쓰이 물산회사[三井物產會社]의 경성 지점에서 근무하던 高野省三(1872-1922년 이후)의 부인이다.<sup>64)</sup> 청풍계가 실제로 일본인 부부의 개인 소유였는지 미쓰이 물산회사의 소유인데 명의만 그렇게 표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35년 『조선일보』에는 청풍계가 미쓰이 물산회사의 소유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본래 청풍계에 있던 태고정이 1926년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전 되었으며 1935년 당시에는 청풍계의 건물이 오직 한 간만 남아 있다고 기록하였다.<sup>65)</sup> 다음은 옥호정, 석파정, 청풍계의 소유권이 20세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61) 陳內六助, 1917 『京城府管内地籍目錄』, 京城共同株式會社, 136면(1982, 大林圖書出版社 영인본).

62) 『동아일보』 1924.7.19 「青雲洞 清風溪」(강명관, 2010 『사라진 서울: 20세기 초 서울 사람들의 서울 회상기』, 푸른역사, 312면에서 재수록).

63) 陳內六助, 1927 『京城府管内地籍目錄』, 京城共同株式會社, 325면(1982, 大林圖書出版社 영인본).

64) 野依秀市 編, 1994 『大正人名辭典』 III, 日本図書センター, 46면. 高野濱에 대한 기록은 京都工芸纖維大學의 並木誠士 교수와 井戸美里 교수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65) 『조선일보』 1935.9.19 문일평, 「근교산악사화 1. 인왕산 (2) 仙源舊基인 太古亭」(방응모 편, 1946 『湖岩全集』 3, 朝光社, 165-167면에서 재수록).

〈표 3〉 옥호정, 석파정, 청풍계 소유권의 변동

	玉壺亭		石坡亭		淸風溪	
	소유주	소유기간	소유주	소유기간	소유주	소유기간
前 주인	張生	1804년 이전	趙正萬	?-1739년	?	?
안동 김문	金祖淳	1804-1832년	金興根	?-1866년(?)	金永銖	1446-1502년
	金追根	1832-1840년			:	:
	金左根	1840-1852년 이후			金尙容	1607-1637년
					김상용의 직계자손	:
왕실 종친	李載覺	1917년 이전-1935년	李暉應	1866년(?)-1898년	昌德宮	1917년 전후
			李載冕	1898-1912년	高野濱	1927년 전후
			李浚鎔	1912-1917년		
			李鍇	1917-1945년	三井物產會社	1935년 전후
			李清	1945-1948년		

청풍계는 16세기 아래 노론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때에 따라 문예의 산실이자 문예의 후원처로 활용되었으며 학통의 상징이자 정파의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왕실을 거쳐 일본 자본의 소유가 되었다. 오랜 기간 노론 그룹이 소유하였던 삼계정도 대원군을 거쳐 그 직계 후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김조순의 옥호정 또한 친일파 종친에게 넘어갔다. 유서 깊은 안동 김문의 별서들은 20세기 전반에는 모두 왕실 및 종친의 차지가 되었다(표 3). 사실상 왕족과 權臣이 정치적 패권을 다투는 일은 그것 자체가 불가피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정치적 대립은 예술 후원과 문화 권력에의 경쟁으로 이어지곤 하였다.<sup>66)</sup> 조선 사회에서 별서는 단순한 거처지가 아니었다. 별서의 경영은 가문 및 정파의 성쇠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의 별서를 단순한 재산권의 대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별서의 경영과

66) 황제와 신료 간에 정치적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이 경쟁적으로 예술의 후원을 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Karen M. Gerhart, 1999 *The Eyes of Power: Art and Early Tokugawa Author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x-xi. 이 연구에서는 일본 에도시대에 조성된 교토성, 니조성, 나고야성, 장벽화, 정원 등 의 건축물과 시각물의 조성을 친황과 막부 세력의 경쟁 관계 안에서 논의하였다.

별서도의 후원은 특권층에만 허락된 문화 행위였다. 따라서 이를 둔 경쟁은 문화적 우위를 장악하고자 한 의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별서를 두고 권신과 왕족이 별인 경쟁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 권리’보다 더 탈취하기 어려운 ‘문화 권리’을 다룬 역사라 할 수 있다. 人文의 힘은 땅의 주인이 갈리고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옥호정, 옥호정도, 석파정, 삼계정, 석파정도, 이하옹, 김조순, 별서도, 별서

투고일(2018. 2. 23), 심사시작일(2018. 3. 6), 심사완료일(2018. 3. 20)

### 〈Abstract〉

## Rivalry for Cultural Supremacy: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Space and Its Representation in 19th century Joseon Society

Soojin Kim \*

In pre-modern Korea, the ownership of villas and the patronage for paintings of those villas were exclusive activities only for the privileged circles. Those estate paintings were not only ostentatious instruments but also strategical media to embody political messages and cultural supremacy. This paper examines such patronage activities in the Joseon society, which involved two powerful families: Andong Kim cla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urtier families; Jeonju Lee clan,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Andong Kim family had continued their constructions of villas within and without the capital city and maintained their patronage for paintings of those villas, depending on family's political vicissitudes. By depicting the patron as a recluse, a guardian of the cultural heritage, or a power-holder, the family actively employed the function of paintings, which create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messages in the most elegant ways.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however, not only Andong Kim's ownership of villas but also their tradition of visual representations were taken over by the Royal Family, as Regent Heungsun began to take the measure to keep a tight rein on Andong Kim's monopolization of political power. Ironically, the Royal Family had continued their confiscation activities of such cultural supremacy even though the Dynasty itself stepped into the downfall in the twentieth century. Given this story, the paper elucidates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rivalry in art patronage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two families. In so doing, I hope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nineteenth-century Joseon society that has been limited by an unbalanced focus on political history.

**Key Words :** Kim Josoon, Regent Heungsun, Okho Villa, Seokpa Villa, Estate Paintings, Joseon Society

---

\* Associate, Harvard-Yenching Institute.